

## 콘텐츠

김채연.....	2
주유라.....	4
최지은.....	19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재연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학번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어학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리옹가톨릭대학교(LCU)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3월 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저는 2024학년도 2학기 파견 어학교환학생으로 프랑스 리옹에 위치해 있는 리옹가톨릭대학교(LCU) 부설 어학원인 ILCF에서 어학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수업]

상명대학교에서는 어학교환으로만 프랑스로 학생을 파견하기 때문에 어학원에서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어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먼저 파견되기 전 어학원으로부터 온 메일을 통하여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후 해당 결과에 따라 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신이 배치된 반 수업의 레벨이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 4일 월, 화, 목, 금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정규 어학 수업을 듣고, 수요일에는 정규 수업보다는 비교적 활동 위주의 2개의 수업을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 듣게 됩니다. 수업은 오전과 오후 수업으로 나뉘지며 오전 수업은 오전 8시~오후 12시, 오후 수업은 오후 1시~오후 5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오전/오후 수업의 여부는 개개인에 따라 랜덤으로 배치가 됩니다. 모든 수업은 프랑스어로만 이루어집니다.

### [기숙사]

기숙사는 Maison des Etudiants에서 거주하게 되며 해당 기숙사는 Saint Laurent과 Saint Bernard 두 건물이 있습니다. 두 건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Saint Laurent은 공용 화장실이고 Saint Bernard 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Saint Bernard는 각 방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Saint Laurent 보다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에 화장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생활하기에 더욱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Saint Bernard로 기숙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Saint Bernard 기숙사는 공용주방을 사용하며 주방에 개개인의 보관함이 있고 해당 보관함에 큰 숟가락, 작은 숟가락, 포크, 나이프, 손잡이 있는 컵, 손잡이 없는 컵, 큰 접시, 작은 접시, 밥 그릇?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젓가락은 없으니 젓가락은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덕션을 사용하므로 마트에서 인덕션 마크가 있는 제품(냄비 등)을 구매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각 개인방마다 있으나 참고로 크기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이 생각보다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히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추운 겨울에만 작동이 되고 작동하더라도 한국과는 달리 많이 따뜻하지는 않으니 전기장판을 반드시 챙겨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한국에서 챙겨온 물건 중 가장 챙기기 잘한 물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문단속 형식이 한국과는 다르게 아날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방 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나올 때 방 키를 깜빡 두고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고 나올 경우 로비에서 직원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세탁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으며 세탁기 사용시 세제가 자동으로 나오므로 따로 세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이켜보니 현지에서 프랑스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생활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뜻깊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더 경험하고 올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 여행, 기타 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이 무엇보다 가기 전 프랑스어 및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주유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국어교육과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LYON CATHOLIC UNIVERSITY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3월 14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 목차

#### 1. 교환학생 개요

- (1) 프로그램명 및 기간 정보
- (2) 지원 과정 및 필요 서류

#### 2. 프랑스 초기 정착

- (1) 은행 개설
- (2) 번호 개통
- (3) TGV MAX
- (4) 초기 정착 비용

#### 3. 학업 경험

- (1) 수업 방식
- (2) 시험
- (3) 학교 수업 외 프로그램

#### 4. 기숙사

#### 5. 준비물 추천

6. 여행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7. 리옹의 추천하는 장소
8. 교환학생을 마치며

## 1. 교환학생 개요

### (1) 프로그램명 및 기간 정보

프랑스 LYON CATHOLIC UNIVERSITY에 24년도 2학기 어학 교환학생을 다녀온 국어교육과 주유라입니다. 제가 참여한 LCU 교환학생 프로그램명은 '1er semestre intensif 2024-2025'입니다.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통해 평일 4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의 프랑스어 수업을 받았으며, 2학기 프로그램 기간은 24년 10월 2일부터 25년 1월 24일까지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오전반 배정 시 평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이며 오후반 배정 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 (2) 지원 과정 및 필요 서류

- 지원 서류에 대한 설명

어학 교환학생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원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본교에 학업 계획서, 교수 추천서, 성적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마친 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본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는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교 승인 후 가능한 한 빠르게 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학생 비자는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출국 4개월 전인 6월 말부터 비자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본교, 프랑스 대사관, LCU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헛갈리지 않도록 파일을 정확히 분류해 놓았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겼습니다.

- 학생비자 발급에 대하여

학생비자 발급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Campus France 서류 제출 + 면접 (온라인 서류 절차 및 사전 영사 면접)

2단계 : 주한 프랑스대사관 비자과 서류 제출 + 면접

1단계에서 캠퍼스 프랑스에 CV를 제출할 때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 명시해야 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휴학 기간에 한 활동까지 간단히 명시하여 제출했습니다.

2단계에서 대사관 면접 날짜 예약을 홈페이지 슬롯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보기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임라인

24년 7월 2일 캠퍼스 프랑스 서류 제출

24년 7월 31일 캠퍼스 프랑스 면접

24년 8월 21일 대사관 면접

24년 9월 1~2주 차 무렵 비자 발급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캠퍼스 프랑스 서류 제출 후 보통 2주 안으로 면접을 봅니다. 저의 경우 개인 일정이 겹쳐 캠퍼스 프랑스 면접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처럼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마친 뒤에서야 대사관 면접 예약을 잡으면 비자 발급이 매우 늦어지게 됩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은 후부터 미리 대략적인 대사관 면접 날짜를 가늠하여 면접 날짜를 예약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서류 제출 준비와 더불어 대사관 면접 예약 슬롯에 자주 방문하여 가장 가까운 예약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예약을 해두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사관 면접 날짜를 예약하는 과정에서는 '프잘사(프랑스를 잘 아는 사람들)'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돈을 주고 날짜를 거래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예약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홈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며 취소 표를 잡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면접 날짜를 예약해 두셔야 합니다. 단, 캠퍼스 프랑스 면접을 본 후 3일이 지나야만 대사관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대사관 면접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날짜까지 캠퍼스 프랑스 면접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예상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 학생비자 신청 절차 : <https://www.coree.campusfrance.org/hagsaengbija-sincheong-jeolcha>
- 참고하기 좋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coa/222620351713>

- CAF(까프, 주택보조금) 서류 준비

- CAF(Caisse d'allocation familiales, 주택보조금)란, 프랑스에서 집세를 내고 지내게 되면 프랑스 정부로부터 그 금액의 일정 부분(10~20%)를 보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 저는 까프를 통해 2월 5일 레볼루트 계좌를 통해 371유로를 돌려받았습니다. 본교 지원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생 버나드, 생 로랑 기숙사 모두 기숙사비가

높은 편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 검색하면 번역가를 구해 한국에서 번역을 받아서 가라는 내용이 많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학기 개강 전에 프랑스에 도착하여 파리 주프랑스대사관에 방문해 서류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 파리 방문 시 교통권은 IDF Movilites 어플 이용하여 아이폰 애플페이 사용하듯이 지갑에 넣어서 태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데이 티켓보다는 하나 짜리 티켓을 썼을 때 교통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리옹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포스티유 신청 시 서초구 양재역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이 아닌 경복궁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A 15층)로 가야 합니다. 2023년 6월에 이전하였습니다.
- 저는 아멜리 신청을 완료하지 않고 임시번호(P로 시작함)를 받아서 까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서류 준비 순서>

- (1)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발급받기  
: 저는 무인 기계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했습니다.
- (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방문하여 아포스티유 도장 받기  
: 현금을 내야 합니다. 건물에 ATM이 있습니다. 양재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 (3) 파리에 있는 프랑스한국대사관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기  
: 오전에 방문하여 당일에 다시 리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당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들께서 처리해 주시고, 오후 4시 무렵에 다시 찾아가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까프 신청 서류를 한 데 묶어 홈페이지에 올리기  
: 학생비자, offi 사본, 거주허가증, 여권, 파리 대사관에서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증명서 총 6개의 서류를 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까프 신청 절차를 다 마친 후에 파일을 올리는 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허가증은 요청하지 않아도 기숙사 측에서 까프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정보와 함께 바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 2. 프랑스 초기 정착

- (1) 은행 개설

한국에서 1~2주짜리 유심을 미리 사서, 그 번호로 revolut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번호를 개통할 때 계좌가 필요한 부이그에 쉽게 RIB(Relevé d'Identité Bancaire)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Revolut는 애플페이로 아이폰에서 지갑에 추가하여 사용하기에 매우 간편합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트래블월렛의 돈을 레볼루트에 옮기면 리옹에서의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BNP가 국민은행 같은 느낌이라면 Revolut는 토스, 트래블월렛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직관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요금 정기 출금도 레볼루트로 가능합니다.

## (2) 번호 개통

어플을 통해 출금 및 해지가 간편하고 프리 모바일을 쓴 주변 친구들보다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부이그 사용을 추천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저렴한 요금제를 구매할 수 있고, 저는 한 달에 7.99유로짜리 플랜을 구매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누비며 여행할 때에도 한 번도 답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잘 터졌습니다. 다만 터키에 갔을 때 부이그를 켜다가 요금 폭탄을 맞았으니, 유럽 외의 국가를 여행하게 된다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이 매달 정해진 기간 안에 출금되지 않는 경우 10유로 정도의 추가금이 붙습니다. 프리 모바일은 리옹에 여러 오프라인 지점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처리하기 쉽습니다. 돌아올 때 부이그 해지 시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3) TGV MAX

한 달에 약 12만 원(80유로) 정도의 돈을 내고 다양한 도시로 이동하는 0원짜리 기차표를 얻을 수 있는 떼제베 맥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추천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주말에 자주 여행을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지만,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이 떼제베 맥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버스를 더 자주 타게 됩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비행기를 자주 탔습니다. 특히 바캉스 기간에 여행을 다닐 때 기차가 빠르긴 하지만, flixbus같은 버스를 이용하면 3~6만 원대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달만 쓰고 해지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인터넷 정보가 있지만 15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습니다.

TGV MAX를 이용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매달 계좌에서 돈이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또는 돈을 잘 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나가지 않은 점을 모르고 니스행 기차를 타서 약 25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티켓과 qr코드가 발급되어 의심도 없이 기차를 탔던 것입니다. SNCF(프랑스 철도청)는 항의를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유명하다는 것을 이때 알 수 있었습니다.

(4) 초기 정착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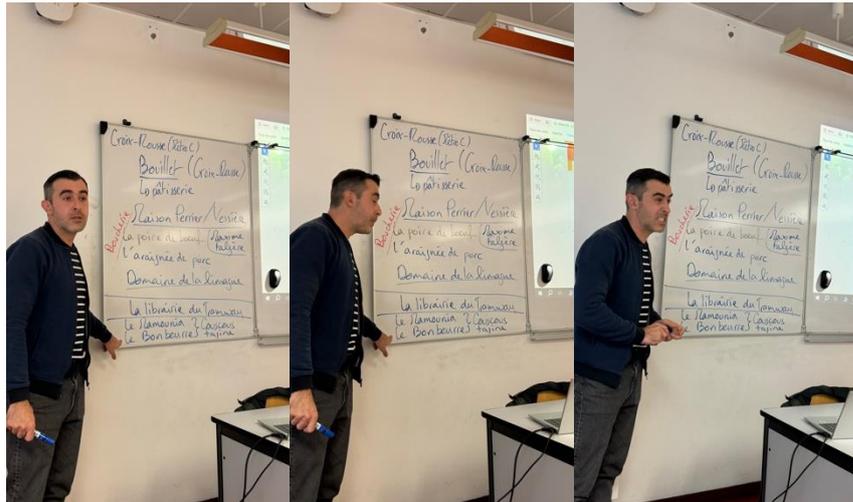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지출한 초기 정착 비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당 비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기마다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목	상세	원/유로	비고
캠퍼스 프랑 스 등록	영수증을 서류로 제출해야 함	333,000 원	토스 영수증 제출 가능
비자 발급	대사관에서 직접 내야 함	약 7만 원	카드 가능
대학교 등록 보증금		370유로	
기숙사	St.bernard	월세 587 유로/월*4 신청비 125유로 보증금 600유로	1. 트레블월렛 가능 2. St. Laurant이 더 저렴함
등록금		2,710유로 (정확X)	학교 가서 납부
필수 고정비	도서관: €48  민사 책임 보험: €13  UCLy 건강 기여: €26.50  학기당 교육 기여: €4  ILCF 학생 사무실: €7  연대 기금: €15	113.5유로	학교 가서 납부
학생 및 캠퍼스 관리 분담금(CVEC)		90유로	
Adh 주거 보 험		약 28유 로	출국 전에 주거 보험을 들어 야 함. 종류 다양함. Adh 사이트 : <a href="https://www.assurances-">https://www.assurances-</a>

			<a href="https://etudiants.com/">etudiants.com/</a> 보험 가입 절차(블로그) : <a href="https://parisliving.tistory.com/8">https://parisliving.tistory.com/8</a>
교통비		25유로/ 월	agence TCL-Bellecour 방문하 여 학생용 교통카드 신청 가 능했음 (사람이 많으므로 아침 일찍 가길 추천)
휴대폰 요금		8유로/월	프로모션 없는 경우 비쌀 수 있고 통신사마다 가격 다름

### 3. 학업 경험

#### (1) 수업 방식



수요일은 특별 수업 같은 형식으로 활동형 수업이 많습니다. 월, 화, 목, 금이 하나의 반에서 지속되는 수업이라면 수요일 수업은 여러 반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은 선택할 수 없고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한국 시간에 맞춰 한국에서 이어오던 어린이, 청소년 글쓰기 수업 보조 활동을 프랑스에서도 이어갔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하루를 어떻게 구성해 생활할 것 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온전히 나의 하루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가고 내 삶을 꾸려나간다는 느낌이 제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수업 시간 외의 남은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천천히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후반이었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오전반을 택했을 것입니다. 특히 겨울 프랑스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하루가 끝났다는 느낌이 아쉽고 허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반의 경우 수업이 끝나고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명 또는 3명의 선생님이 하나의 반을 맡아 수업을 진행합니다. 책을 사용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모든 수업은 프랑스어로 이루어집니다. 초반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실력에 따라 반이 배정되는데, 배정 이후에도 반을 바꿀 기회를 줍니다. 저도 처음에 수업이 수준에 비해 어려워서 반을 낮췄습니다. 낮은 반에서는 초반에만 영어를 조금 사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선생님마다 수업의 질에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수업에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추천해 드리는 바로는 첫째, A2까지 미리 공부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꼭 한국어로 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A2 레벨 이상으로 공부를 하고 오면 높은 반에서 치열하고 발전적인 분위기 속에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지 않은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은 걸 얻어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한 자신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한 학기 동안 사용할 두꺼운 종이 노트를 한 권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아이패드나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고 종이 교과서 필기와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고 간 두툼한 공책을 한 학기 동안 꼭 채워 썼습니다.

## (2) 시험

기말시험과 같은 최종 시험을 봅니다. 하루는 말하기 시험을 일대일로 약 10분 동안 진행합니다. 다른 하루는 듣기, 읽기, 쓰기 시험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A2 반이었던 저는 A1 시험 3개(듣기, 읽기, 쓰기)와 A2 시험 3개(듣기, 읽기, 쓰기) 총 6개의 시험을 봤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충분히 누구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와 같은 개념으로 수업 시간에도 예비 시험을 보곤 합니다. 시험을 본 후에도 일주일 동안 수업이 있습니다.

## (3) 학교 수업 외 프로그램

리옹 지역 탐방이나 인형극 관람과 같은 매우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수업이 있는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곤 합니다. 안시 여행과 같은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업 외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을 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기숙사(Saint Bern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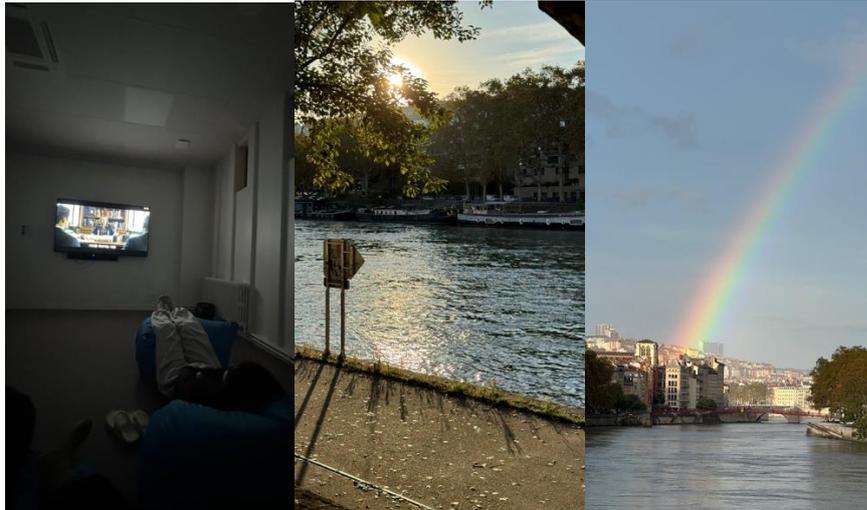
생 버나드 기숙사는 공용공간이 매우 잘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공부실, TV실, 피아노와 기타가 있는 악기 연주실 등등 다양합니다. 완전히 리모델링한 새 건물이고 내부 디자인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방 자체는 작은 편입니다. 1인용 침대, 책상, 침대 아래의 수납장, 옷장, 화장실, 에어컨(냉난방기)가 있습니다. 파견 학기는 겨울이었는데 난방이 잘 안돼서 매우 추웠습니다. Part-dieu 역의 westfield에서 20유로 대에 방석만 한 전기장판을 샀지만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공용 주방이나 공용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기숙사 주방에서 달달한 핫케이크 냄새가 났습니다. 한 프랑스 여자애가 핫케이크 장인처럼 계란, 밀가루, 설탕 온갖 재료를 늘어놓고 굽고 있었습니다. 양 조절을 못 해서 핫케이크가 허리까지 쌓여있는 게 웃겼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제게 먹으라고 한 장을 나눠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마다 프랑수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곤 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친구들도 많습니다. 영어권 친구들은 주로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너 영어 할 줄 알았어?" 하면서 말을 건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양인이라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고 먼저 말을 안 걸었다고 합니다. 답답하지만 먼저 영어를 잘하는 척 뽐내며 말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많이 낸다면 기숙사 생활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있고 세탁 3유로, 건조 1유로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여 트래블월렛으로 결제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사람이 없는 편이고 수요일과 주말에 사람이 몰립니다. 빨랫감을 많이 넣으면 건조가 잘 안돼서 두 번씩 돌린 적이 많은데, 건조기에서 레버를 돌리다 보면 다른 것보다 시간이 긴 것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더 긴 시간을 건조할 수 있는 걸로 추측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밥그릇, 접시, 포크, 숟가락을 제공합니다. 퇴실할 때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냄비, 도마, 젓가락 등은 구매해야 합니다. 다이소 도마를 사오면 편리합니다. 젓가락도 파는 곳이 흔하지 않으니 가져오면 좋습니다.



## 5. 준비물

### (1) 유용한 준비물

- 유용한 준비물로는 돌아올 때 많아진 짐을 담을 거대한 캐리어, 기숙사 창문에 붙일 다이소 방충망, 많은 양의 수건과 양말과 속옷이 있습니다. 세탁 망도 유용합니다.
- 트래블월렛 한 장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 평소에 먹지 않는 종류의 비상약(멀미약, 알레르기약 등)을 챙겨서 유용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가니 생각지도 못한 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첫날과 둘째 날에 먹을 간단한 음식을 챙기면 좋습니다. 장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먹을 수 있는 햇반, 라면 등을 챙겨가서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독특한 종류의 라면을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처 한인마트(ACE 마트 등)에서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신라면, 진라면 등 유명한 라면은 많이 팝니다.
- 소매치기 방지 스트랩을 챙겨가서 런던과 로마 등을 여행 때 유용하게 썼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는 런던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당했고 같은 반 일본인 친구는 리옹 근처 다른 도시를 여행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광장이나 지하철과 트램의 문 앞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나라 여행 중 호스텔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다이소 자전거 자물쇠 등등의 자물쇠가 유용합니다.
- 설탕,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을 소분해서 가져가면 유용합니다. 대용량만 팔기 때문에 세 달 머무는 동안 먹을 만큼 조금만 가져갔는데 요리할 때 잘 썼습니다.
- 안 가져갔지만 가져가면 좋았을 준비물로는 근처 나라를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닐 계획이라면 기내용 작은 캐리어, 김치찌개를 해 먹고 싶다면 코인 욕수가 있습니다. 요 리옹 가위도 팔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챙겨 오길 추천합니다.

### (2) 불필요한 준비물

- 불필요한 준비물로는 지나치게 많은 필기구와 공책, 기숙사 화장실에 끼울 수 없었던

샤워기 필터, 많은 옷이 있습니다. 자주 입기 불편한 너무 예쁜 옷은 평소에 잘 안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옷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리옹에는 적당한 가격의 빈티지 가게가 많고 예쁜 옷도 정말 많습니다.

## 6. 여행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프랑스는 바캉스 기간이 많습니다. 일주일씩 쉬기도 합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돈을 최대한으로 모아간 것이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니스, 그르노블, 아비뇽을 돌아다녔고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를 여행했습니다. 한 곳을 갈 때마다 머릿속 지도에 꺼져있던 불이 한 개씩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단어와 이미지로 존재하던 공간인 것과 그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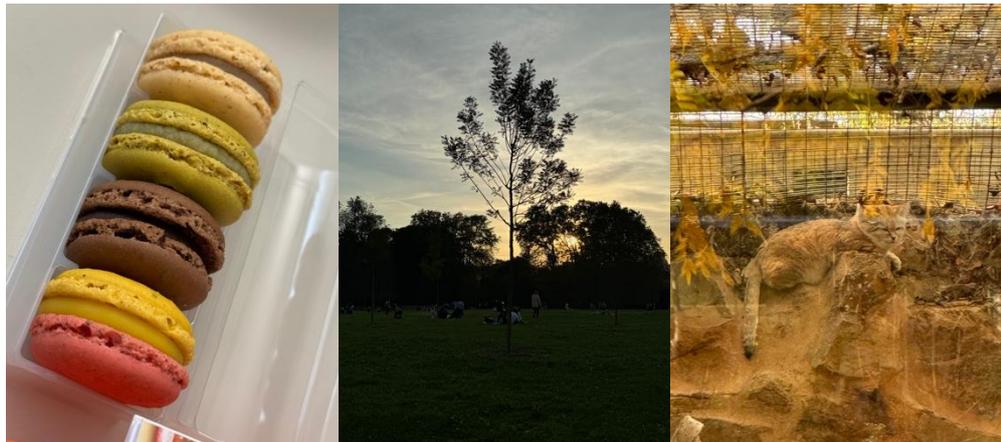
각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기분으로 이동하는 비행기나 기차에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나라를 가장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문학을 읽는 것이라는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갈 때에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를, 체코 프라하에 갈 때는 카프카의 '변신'이나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읽는 식이었습니다. 매번 완독하지는 못했지만, 여행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즐거웠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를 조금 읽고 페소아 박물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마냥 밝게만 느껴지던 도시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다니면 페소아의 눈으로 도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낮에 들른 조르주 성이 밤에 읽는 페소아의 책에 그대로 나왔을 때는 '내가 간 곳이다!' 하며 아는 척하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주어진 넉넉한 시간 동안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하고 깊게 좋아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 7. 추천하는 장소

- 생필품: normal에 가면 대부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식재료: U express와 Carrfour를 가장 자주 이용했습니다. Monoprix, vival, franprix는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Lidl이 가장 저렴합니다. LU 과자 중에 빈츠같이 생긴 과자가 맛있어서 자주 먹었습니다.
- 영화관: pathe bellecour, UGC cine cite confluence, Comoedia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군

데가 있습니다. Comoedia에서 '아노라'를 보았는데 학생 할인을 받아 대략 8유로쯤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막이 프랑스어입니다.

- 빵집: 학교 바로 앞에 있는 maison POCHAT 보다 Ainay's Bakery가 훨씬 맛있습니다.
- 빈티지샵: elephant vintage store (LEONARD Vintage store와 같은 곳)
- 마카롱: Chocolaterie le Lautrec 리옹 최고 명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 Betty's bar 주인 언니가 엄청 친절합니다. 메뉴에는 없지만 '모나코'라는 술을 주문하면 만들어주십니다. 체리맛 맥주입니다.
- 공원: 떼뜨도흐 공원(Parc de la Tete d'or). 리옹의 가장 크고 유명한 공원입니다. 기린, 홍학, 꽃사슴, 샴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잔디밭이 엄청 넓고 평화롭습니다.
- 속옷만 빼고 신발까지 다 뺏어간다는 기요띠에 지역은 밤 늦은 시간에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라자냐: Les halles de lyon paul Bocuse 시장은 관광객 대상의 실내 시장입니다. 시장 안의 'Ciao Ciao'에서 파는 라자냐가 맛있습니다.
- 학교 1층 매점: 학생증을 태그하고 결제하면 더 저렴합니다.



## 8. 교환학생을 마치며

교환학생을 지원하며 대사관에 면접을 보러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학생과는 프랑스어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어를 잘할 수 없는 경우 영어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프랑스 면접에서 저는 영어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일대일로 이루어지지만 출국이 임박할 경우 다대일로 면접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프랑스 면접 시간은 10분~15분 정도로, 전공을 비롯한 자기소개, 교환학생 지원 동기와 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면접 당일날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말하는 다른 지원자들을 보며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것에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주눅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녜스 바르다 감독을 좋아합

니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왜 이런 말을 했지, 싶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항상 확신에 가득 차서 신이 나 상기된 얼굴이곤 했는데, 처음으로 아주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저를 보며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관련 부서에 취직하려면 최소 B1 레벨까지는 해야 한다, 그러니 이대로 프랑스에 가봤자 많은 걸 배워올 순 없다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어떻게 하면 프랑스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빨리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만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게다가 면접관과 다른 지원자들에게 내가 한심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감과 열등감을 동력으로 삼아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니 금세 마음이 초라해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면 먼 곳을 보기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화살을 쏘듯 멀리, 아주 먼 곳의 나를 상상했습니다. 어느새 학교 앞 빵집에서 크로와상짬은 떨지 않고 주문하는 나, 트램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말을 걸 때 대충은 알아듣는 나, 할머니에게 수업에서 배운 문장으로 대답해 보는 나, 어느새 내 안에 새로운 문장이 가득 차서 입이 열릴 듯 말 듯 우물우물 떨리는 나. 그 먼 곳에서 살아가는 내 느낌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때 상상했던 일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떨리고 어색했던 것이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건 아주 작은 두려움과 멋쩍음을 매일 이겨 나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사소하다고 해서 그 마음 자체가 사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그 사소한 이유들을 잘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싫어지거나 프랑스어가 지겨워질 때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아녜스 바르다 할머니의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고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루이 폰스는 언제 영화를 틀어도 매번 똑같이 말합니다. “다들 쓰레기로 취급하지만 나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죠. 물건마다 각각 방향과 선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주워 와서 작품을 만들어내죠.” 루이 폰스가 쓰레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심정을 헤아리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마음들이 뭐가 될까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사소한 마음이 어떤 방향과 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집니다.

프랑스에 있는 동안 교실 안과 밖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같은 반에만 해도 1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나이대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나이지리아, 캘리포니아, 미얀마에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각자의 목표를 꿈꾸며 프랑스어를 배워 나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언니는 어디선가 커다란 마를 구해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마로 요리를 많이 해먹는다고 합니다. 언니를 돕느라 처음으로 거대한 마를 손질해 보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손질한 마와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서 나이지리아 음식도 요리해 주고, 요리를 하면서 라틴 음악에 엉덩이를 흔드는 춤도 알려주고, 또 다른 날엔 커다란 도넛과 바나나빵도 구워줬습니다. 언니는 밥을 손으로 먹었는데 저는 눈치를 보다가 손가락으로 먹었습니다. 무엇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이해인지를 매순간 눈치껏 가능해가며 언니와 슬슬 가까워

졌습니다.

또다른 미얀마 언니는 처음 먹어보는 송아지 고기와 끝내주는 소시지를 구워주면서 미얀마 독재 정권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밥을 사 먹으라고 미얀마 학생들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으로 무기를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와 2024년 현재가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마다 답답해서 영어든 프랑스어든 내 마음껏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얀마 언니는 저보다 더 전두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언니는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로 일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똥 싸지 마!"라는 말을 제일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똥을 누면 캘리포니아 언니가 잠자리채 같은 것으로 다 건져내야 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웃긴 여자들과 한 교실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 언니들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아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다가도 와중에 틔더도 하고 요리도 하고 자기 나라에 돈도 보내고 춤도 춥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할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재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가지 않을 이유가 많았습니다. 국어교육과에선 아무도 안 가니까, 빨리 임용 시험을 봐야 하니까, 4학년 2학기니까, 초과학기를 다녀야 하니까 등, 이유가 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마치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얻을 것만 같이 불안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답안지 같은 삶을 찢어버리는 각국의 언니들이 제게는 용기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다는 문장이 언제나 제게는 말뿐인 문장이었는데, 이 언니들은 이 문장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제나 프랑스에서 만난 이 언니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평생 살던 공간과는 전혀 다른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가 나를 돌보는 데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에 가면 이것도 잘 하고 싶고 저것도 잘 하고 싶은 욕심이 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글쓰기 선생님이 가기 전에 해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사는 것만으로도, 빨래하고 밥 잘 해먹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 많은 성취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계좌를 열고, 프랑스 번호를 받고, TCL 교통 카드를 발급받고, 월세를 내고, 거주 지원금을 받고, 내가 먹을 음식을 정해 장을 보고, 새로운 식재료로 요리

를 합니다. 그 모든 게 전부 내 몫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낯선 환경 속에서도 혼자서 야무지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용기를 내다보니 어느새 내 안에 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용기를 내어 지원하길 바랍니다.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지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2 프랑스어권지역학전공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국가	프랑스
보고서 제출일	2025년 01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

2024-2학기에 저는 프랑스 리옹으로 어학교환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 타지 생활을 경험한 나라였고, 리옹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소중한 기회로 남았습니다.

### 비자 준비

저는 9월 26일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비자 발급, 기숙사 신청, 학교 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를 위해 2024-1학기 동안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비자 관련 정보는 블로그를 참고하며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으며, 저희 전공의 경우 비자 면접에서 불어로 자기소개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를 답해야 했습니다. (타 전공 학생들은 영어로 면접을 봤습니다.)

비자 서류를 작성할 때 해당 학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했는데, 학교 측에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서류 처리가 3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메일 답장이 느리고 프랑스 공휴일까지 겹쳐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결국 학교 측 실수로 인해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자 면접관께서 프랑스에서는 행정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음 학기에 오는 분들도 미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업과 학습 환경

9월에 온라인 테스트가 있었고, 10월 3일에는 학교에서 구술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 레벨이 배정되었으며, 개강 후 일주일 동안 반 변경 요청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업 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었고, 프랑스어 작문, 조별 활동, 역할극, 노래 배우기, 크레페 만들기 등 실생활과 연계된 흥미로운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은 월·화/목·금으로 나뉘어 두 명의 선생님이 각각 담당했습니다.

수요일은 정규 수업이 아니었지만, 저는 집중 학기를 신청해 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진행되며, 오전반(8:00-12:00)과 오후반(13:00-17:00)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대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반 친구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란,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집트,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각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팀별 활동이 많아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도 많았습니다.

### 기숙사 생활

저는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Students Houses St. Bernard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1인실 기숙사였으며, 한 달에 587유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했고, 기숙사 내에는 헬스장, 탁구장, 세탁기, 공부방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기숙사인 만큼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는 리셉션을 통해서만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에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안전 면에서는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 음식과 생활

프랑스에 도착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쌀이 주식이 아닌 나라라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마트에서 쌀을 사 요리해 먹거나 파스타를 자주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빵집에서 파는 디저트류 빵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유제품과 과일도 저렴한 편이라 종종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매일 직접 요리하며 생활했습니다.

#### 여행과 교통

유럽은 나라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여행하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가 페라쉬역(Perrache)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했으며, 주말에는 기차로 2시간 거리인 파리로 쉽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은 단순한 어학 연수를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자 준비부터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까지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처음 해외 생활을 경험하는 분들이라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접 부딪혀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환학생을 적극 추천합니다.